

# A-PACK 2001

문배식 / (주)유래코 생산관리부 과장

아시아 지역의 경기 침체로 인한 불황에도 불구하고 A-PACK 2001 참가를 위해 한국포장기술인협회의 주관 참관단에 동참하게 됐다. 일행은 예기치 않은 항공사 노조의 파업으로 예정보다 늦은 시각에 일본의 제2도시이자 해상무역의 기점 역할을 한다는 오사카에 도착했다.

다양한 제품 및 포장시스템이 어우러진 OSAKA PACK(A-PACK 2001)은 6월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 간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 전시회장에서 개최됐다.

포장산업에 있어서 최신 생산품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서 참석했던 이번 전시회는 다양한 출품물과 웅장한 규모의 전시장, 발 디딜 틈 없는 참관객이 성시를 이뤄 일본 오사카라는 지역에 한정된 전시회라기보다는 아시아 전 지역의 포장산업을 포괄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전시에는 총 전시장 5홀 규모에 268개사가 참여해 다양한 포장산업 관련 전시물이 전시됐다.

출품내역을 살펴보면 국내 전시와 마찬가지로 포장기계 업체의 참여가 가장 두드러졌으나 포장자재, 포장시스템, 포장디자인, POP 및 포장디자인, CAD/DAM 시스템, 골판지인쇄기, 플라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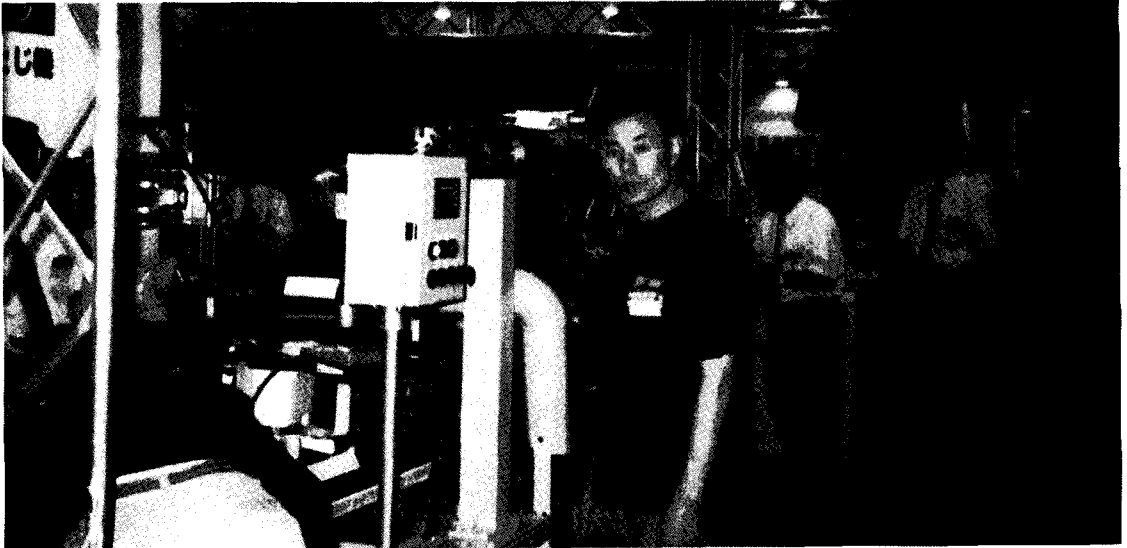
틱인쇄기 및 빵제조기, 재활용기계, 스티커 라벨기계, 물류기 등의 업체가 참여해 비교적 고른 참여가 이루어졌다.

전시장인 International Exhibition Center는 규모면이나 부대시설면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면모를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 및 무역업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각종 기관을 보유한 대규모 전시회 시설이었다.

전체적인 이번 전시회의 특징이라면 다종·다양한 출품물이 전시됐다는 것을 들 수 있으나 국내 전시회와 비교해 출품작들의 수준에서 크게 차이를 느낄 수가 없었으며 획기적인 신제품도 눈에 띄지 않아 아쉬움이 있었으나, 아시아 전 지역에서 참관을 위해 방문한 참관객들에게 각 업종에 걸쳐 많은 볼거리를 제공했다는 점은 인정할 만 했다.

포장시스템의 기술적인 면에서도 국내 전시회와 비교해 볼 때 특징있는 변화는 눈에 띄지 않았으며 포장자재 및 관련기계의 종류나 특성도 국내에서 접했던 일반적인 것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제품의 품질면에서 정교함과 섬세함, 치밀함은 엿볼 수 있었으며, 포장업계의 선두다운 일본인의 자부심과 의지가 돋보였다.



▲ A-PACK2001 전시회를 참관하는 문배식 과장

동행한 참관단들은 포장소재, 포장디자인, 인쇄 및 식품관련 및 기타 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기에 각자 다른 각도로 이번 전시회를 참관했다고 사료되는데, 내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본 분야는 회사의 주생산품과 관련이 깊은 Shrink Film 분야였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국내에서도 친환경적인 포장재 사용 의무화로 인해 PVC Shrink Film 사용을 규제하고 타소재(PET, OPS) 사용을 의무화했으나 품질문제 및 포장시스템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본은 친환경적인 Shrink Film(PET, OPS)사용이 정착되어 연간 4만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동일용기, 동일제품의 필름사용으로 환경친화적인 포장산업으로 완전히 전환되었음을 볼 수 있었다. 품질과 기술력 역시 탁월해 전시장에 출품된 라벨 역시 최고의

품질을 자랑해 참관객들의 시선과 발길을 잡아 국내 Shrink Film(PET, OPS)관련 포장업체와 대조적인 느낌을 갖게 했다.

비록 2박 3일의 짧은 일정이었으나 포장산업의 선진국인 일본의 일면을 들여다보면서 포장산업뿐 아니라 모든 업종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은 자신의 일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기본에 충실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다. 기본에 충실하며 세심한 부분까지 고객을 위해 배려하는 성의있는 자세도 곳곳에서 느낄 수 있었다. 이는 곧 오늘날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각종 포장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경쟁력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받아 들여야할 점으로 생각한다.

끝으로 다음 해의 전시회를 참관할 기회가 생기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세심한 계획과 준비로 참여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